

전시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요소 및 화면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ta Elements and Screen Design for Exhibition Database

박 민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이두영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Park Min and Lee Too Young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

전시회란 하나의 개별적인 미술작품과는 달리 기획을 통해 집단성을 지닌 일종의 창작물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보면 미술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검색과는 다른 데이터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시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은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과 내용이 일회성으로 소멸해 버리지 않고 하나의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미술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입력데이터 요소를 설정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화면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에도 정보 고속도로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생산되고,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장르별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전시회는 개별 미술 작품과는 다른 한 주제의 맥락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독립성을 지니는 집단 개념으로서 하나의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일회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자료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1998년의 미술 전시는 국내에서 총 6,203건(해외작가의 국내전 포함), 해외에서 이루어진 국내작가의 전시가 총 237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러한 전시회'의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사이버 미술관을 구축하면서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놓았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외에 국내 다른 미술관들도 자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중의 일부나 혹은 현재 전시중인 전시회에 관한 자료만을 홍보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종합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비중은 지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전시 기획자, 즉 큐레이터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의 역할이나 위상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 전시회를 하나의 창작물로 인식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언급하고, 전시회의 자료화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를 축적하고 검색하기 위해 개별 미술작품과는 다른 데이터요소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화면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시회는 단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진열이나 제시, 정보교환의 행위가 아니다. 전시회는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육기능도 아울러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일 수 있다. 만약 입체 또는 평면의 귀중한 소장품이 이해하기 어렵고 유치한 방법으로 전시된다면, 이는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을 주는 것처럼 무의미해진다. 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낱말은 문장 속에서 정돈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술관/박물관의 진열품들도 서로의 연관 속에서 전시되어야 하며, 우리가 책의 낱말을 훑어보듯이 둘러보는 전시장의 공간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시기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시회는 개별작품 하나와는 달리, 하나의 창작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기획전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제, 혹은 한 제목 하에 전시가 기획되어, 그에 따라 전시된 작품들이 일종의 연관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시회는 일반 미술작품과는 별개로 하나의 주제 하에 연결된 집단작품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이며 전시회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시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요소와 접근점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문화관광부, 문예진흥원, 문화정책개발원 등이 2001년 봄부터 시작

한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의 사이트와 국내 미술관의 사이트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국내 미술관 자료실을 방문하여 전시회와 관련한 소장자료의 형태와 종류 및 검색방법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전시회 가운데서 상설 전시는 미술관의 대표적 소장품을 미술관의 전시 일정에 따라 작품을 바꾸어 가며 영구적으로 하는 전시이고, 기획 전시는 미술관의 특징과 성격을 살릴 수 있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하는 전시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기간이 보다 단기간이고 상설 전시에 비해 보다 주제가 명확한 특징이 있는 기획 전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정한다.

전시 기획자들의 기획방법 및 기획과정에 의해 추출되는 전시회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전시 기획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한다. 또한, 전시회 관련 자료는 현재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시회 파일과 수집품 파일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에 포함할 것이다.

한편, 전시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예술작품 관련 메타데이터인 CDWA와 VRA의 접근점을 비교·분석하고, 전시회 데이터요소에 어떻게 적용되고 전시회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어떠한 새로운 요소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전시회 데이터베이스의 화면설계는 이용자 및 전시 기획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파악은 설문조사 방법으로 전시 기획자, 미술 전공자,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3. 전시회의 정의 및 기능

전시는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공개적 행위로서 미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한 성격과 수량의 미술작품들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 일반대중을 상대로 작품을 보여주는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시회는 사람들에게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예술품의 가치를 알려주는 정신적 교류활동으로서 이러한 전시의 기능은 크게 정보전달의 기능과 연구기능, 교육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전시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활동이다. 전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그 작품의 질에 대해 관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시에 있어서 정보의 전달 기능이란 작품의 내용과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관객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²⁾ 즉, 전시(exhibition)는 결코 단순한 진열이나 제시(presentation), 또는 정보의 공개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전시, 연구, 교육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고유한 문화매개 활동이며, 기획, 준비, 구성, 내용의 전문적 지식과 전시디자인의 기술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연출되는 하나의 체계적 행정영역이다.³⁾

전시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는 예술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시의 1차적 자료가 되는 작품과 그 작품들을 연구, 분석, 종합하여 하나의 전시체계를 세우고, 작품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전시조직과 전시조직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을 수용하고 진열하는 전시장과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 가운데 전시장은 오늘의 미술활동의 영역과 작품의 내용을 볼 때 과거의 미술관 속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으며, 어느 일정한

항구적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미술관 개념에서도 벗어난 다양한 장소 또는 일과성 장소가 미술관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는 터이다. 예컨대, 역, 지하철, 도시공원, 거리 등의 도시공간이 넓은 의미의 미술공간으로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과거의 전시 기획자는 보존, 연구, 관리라는 측면의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의 큐레이터, 특히 현대적 성격의 미술관 학예직은 보존, 연구, 관리 이외에 기획, 전시, 교육, 정보 등의 활동이 더욱 신장되고 있는 편이다. 기획은 조사, 연구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구체적인 설계이다. 하나의 전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조사, 연구가 따라야 한다. 따라서, 상설전시도 그렇지만, 기획전시의 경우, 디스플레이는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내야 한다.⁵⁾ 이처럼 전시회는 기획자와 그와 관련한 사람들의 창작성이 깃든 일종의 작품이라고 보아지나, 장소와 상관없이 점차로 증가하는 전시회의 수에 비해 그것의 일회성으로 인해 자료화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4. 전시회 자료

전시회 자료는 기획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와 전시회 결과로 추출되는 자료로 구분된다. 특히, 미술자료는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서 전시관련 자료들은 브로슈어(brochure), 팸플렛, 포스터(poster), 절취자료(clipping), 스크랩(scrap), 엽서(postcard), 리플렛(leaflet), 미술기사(article) 등과 시청각 자료형태인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은 비도서자료에 해당한다. 브로슈어나 리플렛이란 미술관이나 관련기관이 홍보용으로 혹은 전시나 행사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낱장자료이

1) 문화공간 : 문화예술총서 2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p.99~100.

2) 백 영주, 미술관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조형미술학과, 1996.6.

3) 최 은주, 전시행정의 원리와 전시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관화 전시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미술이론 전공, 1989.1.

4) 오 광수, 큐레이터의 활동범주와 역할, 공간 26 : 7, 1991, pp.44.

5) 상계서, pp.46.

며, 팜플렛이란 전시회를 통해 발간된 책자형태의 파일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미술관에서는 기획전 개최시 마다 슬라이드나 비디오물로 촬영하여 시청각자료를 자체 제작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의 범위를 전시회에 관련하여 출판, 생산된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넓게 잡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전시회 카타로그가 단행본 형태로 출판된 것은 통념상 도록으로 칭하고, 단행본 형태 이외에 전시회와 관련하여 간행, 생산된 자료는 전시회 카타로그에 포함시키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에는 전시회 팜플렛이 있다. 도록이나 팜플렛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낱장짜리 리플렛이나 카드 등은 파일자료로 취급되고 있다.⁶⁾ 논문자는 '미술작품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연구 : 예술사적 특수자료로서의 가치와 도서관에서의 관리'(도서관학논집 제28집)에서 전시회 카타로그는 전시관람자에게 사회 교육적 의미와,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시회를 대신하는 기능, 전시회 주최자에게는 전시회를 관광 상품화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게하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최신 학문연구의 결과를 알리는 기능, 젊은 예술가들에게 사회에 예술가로서 첫 출발을 알리는 장의 기능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 카타로그는 예술전문인과 일반인, 즉, 미술 생산집단과 미술 소비집단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자료이며, 미술 전문도서관에서 단일자료의 유형으로서는 30내지 40%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료라고 하였다.

5. 전시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요소 설정

본 연구는 AHIP (Getty Art History Information Program)과 CAA (College Art

6) 논문자, 미술작품 전시회 카타로그에 관한 연구 : 예술사적 특수자료로서의 가치와 도서관에서의 관리, 도서관학논집 제 28집

Association)의 후원 아래 AITF (Art Information Task Force)⁷⁾가 개발한 CDWA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의 기본 범주 가운데서 가장 신축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Related Works, Related Visual Documentation, Related Textual References를 기초자료로 한다.

우선, Related Works는 기술된 작품과 관련된 예술작품과 작품들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로서 예술작품들간의 부분/전체 관계를 기록할 수 있다. 이들 정보는 주로 전시기획자의 기록, 전시카탈로그, 전공논문, 잡지기사, 시각자료, 사진자료나 미간행 문헌에서 추출된 것으로 이들 정보는 전시회에서 전시되는 작품들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

Related Visual Documentation은 예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미지를 규명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

- Relationship Type
- Image Type
- Image Measurements
- Image Format
- Image date
- Image color
- Image view
- Image Ownership
- Image source
- Copyright/Restrictions
- Remarks
- Citations

이 범주는 기술된 예술작품의 재생산과 복제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진, 네거티브 필름, 마이

7) AITF(The Art Information Task Force) : 1990년에 형성되었으며, 12명의 Task Force 구성원들은 예술사가, 박물관 큐레이터, 기록원, 시각 자원 전문가, 예술 사서, 정보 관리자로서 예술 정보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위원회의 대표자들이다.

크로피쉬, 비디오테잎, 디지털 이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사진 보관소나 기타 시각자료들이 전형적으로 지니는 이미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예술작품에 관한 정보는 재생산, 연구, 조사, 다큐멘테이션, 교육 등을 위해 종종 이미지로 전환된다. 이 범주에는 예술작품의 이용가능한 재생산이나 문헌화할 수 있는 이미지 등에 대한 참조를 제공한다. 역사적인 사진처럼 시각적인 문헌의 특별한 형태는 예술작품의 이해를 돕고, 주제를 명확히 하며, 창작과 역사에 관한 사실들을 나타낸다. 또한 이 범주의 정보는 이미지의 소유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학문적 출판물(ex. 논문, 역사적 조사)과 잡지(ex. 신문이나 잡지 기사나 비평지)와 목록 기입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ionship Type은 기술된 작품과 이미지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예술작품과 그것의 시각자료와의 관계의 형태를 기록하는 것은 작품과 그 대체물에 관한 정보에의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것의 하위범주의 정보는 기술되는 작품과의 유사한 관계와의 대조 조사로 사용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작품의 연혁과 외형을 세우고, 작품과 그것의 시각 대체물과의 관계에의 모호성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Image Type은 이미지 매체에 대한 명시인데, 다른 검색 기준과의 혼합을 통한 접근점은 특수형태의 이미지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Image Measurements는 이미지의 치수들의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자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또한 전시 기획자에게 있어서는 Web 사이트상의 자료를 위한 디지털 형식의 해상도에서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요소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해야 하는 전시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하위범주들은 IMAGE FORMAT

과의 혼합속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 Textual References는 기술된 예술작품과 관련된 원문상의 정보 출처에의 인용을 말하는데, 기록보관용 문헌, 미간행 필사본, 발행된 서지 자료, 학자나 주제 전문가의 견해에 대한 참조 등을 포함한다. 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시회 카탈로그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작품을 일종의 원문 작품과 연결시키는 인용은 예술작품과 출판된 작품간의 관계를 확실히 해준다.

대체적으로 CDWA와 매핑이 되는 VRA(Visual Resource Association)의 핵심범주(Core Categories)는 작품기술 범주(Work Description Categories)와 시각자료 기술 범주(Visual Document Description Categories)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CDWA처럼 전시회 데이터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요소로서 우선 시각자료 기술 범주를 적용해 본다. VRA 핵심 범주의 시각자료 기술 범주는 다음과 같다.

- Visual Document Type
- Visual Document Format
- Visual Document Measurements
- Visual Document Date
- Visual Document Owner
- Visual Document Owner Number
- Visual Document View Description
- Visual Document Subject
- Visual Document Source

Visual Document Type은 CDWA의 Related Visual Documentation-Image Type과 매핑되는 것으로, 시각자료의 매체(ex. 사진, 슬라이드,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동영상, CD-ROM)의 명시를 의미한다.

Visual Document Format은 시각자료가 어

떻게 저장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시각자료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CDWA의 Related Visual Documentation-Image Measurements와 매핑된다.

Visual Document Measurements는 CDWA의 Related Visual Documentation-Image Measurements와 매핑되며, Visual Document Date는 CDWA와 매핑되는 것이 없다. 만일 이 요소가 전시회에 적용될 경우, 전시회를 비디오 같은 영상물로 저장할 때 Visual Document Date 이외에 촬영자, 촬영방법 등도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예상되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기존의 예술작품 관련 메타데이터로는 CDWA, CHIO, VRA 등이 있으나, 전시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위한 데이터요소 설정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전시회는 전시회명 내지는 전시주제와 작품과의 관련성이 중요하며, 또한 전시회 카탈로그에서 생산되는 기획의의, 작품해설, 큐레이터의 변, 작가소개 등의 요소와 함께 전시회 이후에 발생하는 부대행사나 평가등의 특수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시회의 특성상 텍스트 정보와 영상 정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전시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실제 전시회가 하는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시회가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즉, 전시 기획자에게는 전시회를 기획할 때,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전시회에 대한 영상과 함께 실제적인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보다 다양해지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료로도 유용할 것이며, 미술관 등에서의 활용으로 인해 홍보효과와 함께 미술관에서의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여 미술관과 도서관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이루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의 전시회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전시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용자들에게는 전시내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Dean, D. 1998. Museum Exhibition Theory & Practice. London: Routledge.
- 국립현대미술관. 1999. 미술관과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문예연감.
- 박우찬. 1998. 전시, 이렇게 만든다. 도서출판 재원.
- 오유진. 2000. RDF를 이용한 문화 유산 메타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문헌정보학과.
- 황동열. 1992. 미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현정. 1995. 미술자료의 이용에 관한 연구: 이용자의 주제배경과 관련하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유순남. 1996. 미술정보 전자서비스 시스템 설계 구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정보처리학과.
- 김은영. 1997. 미술관 소장품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의 맥락과 의미. 현대미술관 연구 제8집. 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http://www.getty.edu/research/institute/standards/cdwa>>
- VRA CORE CATEGORIES<<http://www.oberlin.edu/~art/vra>>
- Core List of CDWAConcepts<http://www.cimi.org/public_docs/tagging_guide>
- 유순남. 인터넷을 통한 미술정보 전자서비스에 관한 연구. <<http://www.moca.go.kr/kor/publication>>
- <http://www.culture-arts.go.kr>
- <http://www.sac.or.kr>